

Sections 1 & 2 of double track railway construction  
between Sosa and Wonsi

## 경기 서남부를 잇는 사통팔달 철도 교통망을 구축하다

*Toward  
Global  
Top Tier*



Traffic congestion in the southwest area of the Gyeonggi province is expected to be much relieved thanks to the highly anticipated opening of a double track railway connecting Sosa in Bucheon and Wonsi in Ansan on June 16. The Sosa-Wonsi double track railway will be linked to the Seohae Line to be completed in 2020, the Janghang Line and the Jeolla and Honam Line in the south, and the Daegok-Sosa Line and the Gyeongui Line in the north, creating a major north-south railroad network. Hyundai E&C has been successfully in charge of sections 1 & 2 of the Sosa-Wonsi double track railway project. [▶ Continued on page 6, 7](#)

철도 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경기도 서남부 권 지역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부천 소사에서 시흥시청역을 지나 안산 원시역을 잇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이 오는 6월 16일 개통하기 때문. 남쪽으로는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을 지나 장항선, 전라·호남선과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대곡~소사선을 통해 경의선과 직결돼 서해안 축과 유기적인 남북간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이 사업의 스타트 라인에 있는 1, 2공구 공사를 맡아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 관련기사 6, 7면](#)

## THE H Xi Gaepo built by Hyundai E&C's consortium to be put on the market



The consortium consisting of Hyundai E&C, GS Engineering and Hyundai Engineering kickstarts the presale of THE H Xi Gaepo which is in the most limelight in the real estate market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HE H Xi Gaepo, located in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comprises 15 apartment buildings of up to 35 floors above ground and 4 basement levels with 1,996 units. This time, a total of 1,690 units will be on the market. The new apartment complex is located close to two stations including the Daemo-

### 새로운 강남의 시작, 현대건설 컨소시엄 '디에이치 자이 개포' 분양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오는 3월 16일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 일대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총 1996세대 규모로, 이 중 1690세대(전용면적 63~176㎡)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 별로 ▶63㎡ 188세대 ▶76㎡ 238세대 ▶84㎡ 772세대 ▶103㎡ 240세대 ▶118㎡ 204세대 ▶132㎡ 42세대 ▶173㎡PH 5세대 ▶176㎡PH 1세대다. 일반분양 세대의 약 71%(1198세대) 이상이 실수

san Station on the Budang Line and the Daecheong Station on the Seoul Subway Line 3. It has an easy access to the Gyeongbu Expressway and the Dongbu Expressway. It is also located near one of the most prestigious school districts in Seoul. THE H Xi Gaepo is expected to emerge as a landmark in the area south of the Han River. To match its reputation, the new THE H Xi boasts cutting-edge smart systems including IoT Home System which key technologies of the consortium are all integrated into.

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을 자랑한다. 경부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의 진입도 용이하다. 또한 단지 주변에는 일원초, 중동중·고, 개원중, 경기여고 등 명문 학군이 자리하고 있으며 교육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또한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급 아파트답게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도 적용된다. 사물인터넷(IoT) 홈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만으로 공동 현관을 출입하고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냉방, 환기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

## H Leaders regular general meeting and management seminar in 2018 opens during Mar. 9 and 10



Our company held the H Leaders regular general meeting and management seminar in Haevichi Hotel and Resort Jeju, Jeju Island, for two days from March 9.

This year marks the 7th anniversary of the H Leaders meeting and management seminar. It was attended by about 200 participants including Hyundai E&C's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and CEOs from 161 procurement and subcontracting partners. The meeting, designed to strengthen close cooperation with our partner companies, started with a welcome reception, followed by a regular general meeting, a management seminar and a dinner party.

In a prize-giving ceremony, 11 excellent partner companies were presented with prizes in categories

of procurement and subcontracting. Notably, special lectures, delivered by Hyundai E&C's executives, were well received under the them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8 Economic Forecast and Key Issues," and "2018 Procurement Policies."

"Amid recessions in the local and global construction industry, Hyundai E&C could post rela-

tively solid growth, which was attributed to active cooperation from our partner companies," Hyundai E&C CEO Park Dong-wook said in the opening remarks. "We will build a safe construction environment with no major accidents by strengthening internal safety organizations and establishing a joint safety inspection system together with our partners."

### 2018년 H 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세미나 개최

3월 9~10일, 161개 협력사 참석

우리 회사가 3월 9일, 10일 양일간 제주도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2018년 H 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우리 회사 임직원을 비롯해 161개 외주/구매 협력사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력사와 유기적인 상호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Welcome Reception ▶정기총회 ▶경영자 세미나 ▶만찬 순으로 실시됐다.

우리 회사는 '우수 협력사 포상'

에서 '남양건설'을 최우수 협력사로, '범양이앤씨' '학산건설' 등 11개 기업을 분과별 우수 협력사로 선정했다. 우수 협력사에는 계약 이행보증 50% 감면, 해외현장 견학, 입찰추천 평가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세미나 시간에는 우리 회사 임직원이 강연자로 나서 '4차 산업혁명' '2018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2018 구매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우리 회사 박동욱 사장은 인사

말을 통해 "지난해 국내외 건설 산업의 침체 속에서도 현대건설이 상대적으로 건실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운을 뗀 후 "협력사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외주 부문 우수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기성청구 시, 10일 이내)하는 한편 통합민원 창구를 신설해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 절차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또 선진국 수준의 건설 안전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내년까지 안전관리를 100% 정규직화하는 등 내부 안전조직을 강화하고 협력사와 공동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ZERO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회사는 2010년 협력사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과 연계된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해외진출 희망 협력사 교육과정' '협력사 해외현장 견학' 등 협력사 지원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현대건설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 개시

우리 회사가 3월 5일 건설업계 최초로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고객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들은 이번 서비스로 민원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현대건설 고객센터'를 추가하면 된다. 고객센터 관계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고객과 사진이나 링크 등을 주고받을 수 있어 분양 일정 안내와 같은 단순 상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돼 상담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 고객센터는 지난해 사단법인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2017 KSCQI(Korean Standard-Contact Service Quality Index) 콜센터품질 지수'



조사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3년 연속 아파트 부문 1위에 오른 바 있다. 2007년 건설업계 최초로 '고객센터 대표전화 상담시스템'을 도입한 우리 회사는 그간 특화된 전문 상담인력을 두고 체계적인 상담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 스마트시티 특별 강연



우리 회사가 현대종합설계와 함께 3월 8일 계동 본사 중강의실에서 '스마트시티의 국가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현대자동차그룹 건설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강연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맡아 60분 동안 열 강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스마트시티야말로 4차 산업혁명이 집대성되는 터전"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시티의 이해 ▶정부정책 및 추진전략 ▶스마트시티 민간개발사업의 새로운 접근 방안 ▶스마트시티 시대를 대비하는 건설전문가로서의 역량 등 실무 적용이 가능한 강의 내용으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그룹사뉴스

#### 현대자동차그룹 2018 iF 디자인상 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이 독일 국제포럼디자인이 주관하는 '2018 iF 디자인상(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에서 본상 9개를 수상했다.

기아자동차 브랜드 체험관인 BEAT360은 실내 건축(Interior Architecture)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2개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현대자동차 쏘라티 무빙 스튜디오:i30 패스트백:코나, 기아자동차 모닝(해미명 피칸토)·스토닉:스팅어, 제네시스 G70도 제품(Product) 부문에서 본상을 각각 받았다.

레드닷,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는 iF 디자인상은 1954년부터 매년 제품, 포장, 커뮤니케이션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수상작을 발표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 고성능사업부 출범



현대자동차는 고성능차 및 모터스포츠 사업을 전담하는 '고성능사업부'를 신설하고, BMW의 고성능 'M' 시리즈 북남미 사업총괄 임원 '토마스 슈미에라(Thomas Schiemera)'를 고성능사업부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고성능사업부'는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고성능차 사업과 모터스포츠 사업의 국내외 상품기획과 영업/마케팅을 한곳으로 모아 사업 시너지를 높여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특히 고성능차 연구개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알버트 비어만' 사장과 협력을 강화해 현대자동차만 독자적인 철학과 주행 성능을 가진 고성능차를 선보여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을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 기아자동차 2018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아자동차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사회책임경영 성과를 담은 '2018 지속가능보고서 MOVE(무브)'를 발간했다.

기아자동차 지속가능보고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기아자동차의 의지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서 2003년부터 매년 제작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보고서의 주제를 'The Future Has Begun'으로 정하고,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아자동차의 노력과 이를 통해 달성할 미래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연비 개선 ▶안전과 편의 ▶고객 서비스 ▶임직원 존중과 지원 ▶사회공헌 등을 다뤘다.

## Passionate display opens Games

Mar11

The beats of traditional Korean drums heralded the start of the PyeongChang 2018 Paralympics on Friday night, as the voice of visually impaired singer Lee So-jeong serenaded the eager audience at the Olympic Stadium in Pyeongchang County, Gangwon.

The two-hour-long opening ceremony was attended by some 35,000 visitors including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President Andrew Parsons,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and U.S.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Kirstjen Nielsen. The theme was "Passion moves us."

Lee was joined on stage by dancers surrounding a "paraboat," a flying ship made from equipment that athletes will use across the six paraspports - alpine skiing, biathlon, cross-country skiing, ice hockey, snowboard and wheelchair curling - throughout the nine-day event.

"Everyone is equal," Lee Hee-beom, president of the PyeongChang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18 Olympic & Paralympic Winter Games (Pocog), said during the ceremony. "The Republic of Korea is now welcoming you with its upgraded and matured status in all levels such a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t one point, wheelchair dancers lit up the stage with their bright blue wheels, eventually coming together in a circle to emphasize the theme of passion and unity.

North Korea marched under its own flag led by cross-country skier Kim Jong-hyun. The nation sent a 24-member delegation including skier Ma Yu-chol and four "observing athletes," who will be sent to visit certain events as spectators, to the South last Wednesday.

North Korea's skier Ma Yu-chol and South Korean visually impaired skier Choi Bo-gue



1 Fireworks go off as the cauldron is lit during the final Paralympic torch relay. 2 Dancers line up for their routine as visually impaired singer Lee So-jeong's performance begins at the start of the opening ceremony. 3 Wheelchair dancers perform a piece at the center of the Olympic Stadium stage.

passed the torch to cross-country skier Seo Bora-mi and her coach Kaspar Wirz, who passed the flame to Park Ji-hoon, a triathlete, and his son Park Eun-chong, who has six rare diseases.

The flame was transferred to visually impaired alpine skier Yang Jae-rim and her guide Ko Unsori, who ascended the steps toward the cauldron, stopping halfway to pass the torch to para-ice hockey player Han Min-su, who pulled himself up the slope on a rope to reach the Paralympic cauldron.

Han was met at the top of the slope by a familiar pair of wire-framed glasses - Olympic silver-medal winning women's curling team skip Kim Eun-jung was waiting to light the cauldron. Kim

joined Seo Soon-seok, skip of the Korean wheelchair curling team, and the two lit the cauldron together, symbolizing cooperation and unity.

"Paralympians, you are here in record numbers," said Parsons during the ceremony. "Keep fighting, play fair, have fun and keep pushing your limits. Above all keep dreaming, and may your dreams be realized. Your extraordinary stories are what dreams are made of and will be told for years to come."

The PyeongChang Paralympics has a record number of athletes competing, with a total of 567 competitors from 49 nations. The United States has 68 athletes, the largest team at PyeongChang.

By KOREA JOONGANG DAILY

## Energy minister to discuss nuclear bid in Saudi Arabia

Mar09

Korea's energy minister will visit Saudi Arabia next week as Seoul seeks to tender a bid to build two nuclear reactors in the Middle Eastern nation, the government said Thursday. Paik Un-gyu,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lans to visit the resource-rich king-

dom from March 11 to 13 to meet with Energy Minister Khalid Al-Falih and other officials to hold nuclear cooperation talks.

Saudi Arabia has received requests for information (RFI) from five nations - Korea, China,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Russia.

The country is expected to shortlist two to three preferred bidders by April and plans to select a winner by the end of this year, according to local reports. Paik will introduce Korea's nuclear program and discuss ways to step up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the ministry said.



## Kia celebrates new UEFA Europa League sponsorship agreement

Kia Motors held a partnership inauguration ceremony in Geneva, to become an Official Partner of the UEFA Europa League. The three-year sponsorship agreement commences in time for the 2018/19 season, and runs through to the UEFA Europa League final in 2021.

The UEFA Europa League is the world's largest professional club football competition, involving 48 clubs from 55 countries across Europe, and attracting a global cumulative TV



audience of 1 billion across all programming. As Official Partner, Kia Motors will supply a fleet of 90 vehicles for the UEFA Europa League finals in 2019, 2020 and 2021. The fleet will be used to transport referees, officials, delegates and VIPs.

## Hyundai Motor at the 2018 Geneva International Motor Show

Hyundai celebrates the world premiere of the All-New Kona Electric, the New Generation Hyundai Santa Fe and the concept car 'Le Fil Rouge' at the 88th Geneva Motor Show. The European debut of the All-New Hyundai NEXO will be a further highlight of Hyundai's Geneva Motor Show presence. Connected car technology combined with the futuristic design guideline of the concept car 'Le Fil Rouge' makes the Hyundai stand at the 2018 Geneva

Motor Show a focal point for both car and design enthusiasts. In addition, Hyundai presents the Intelligent Personal Cockpit, which showcases the connection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Internet of Things (IoT) and driver stress det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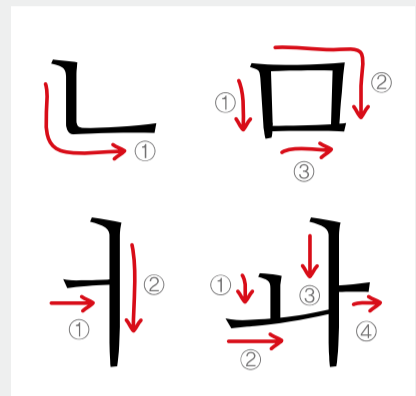


### Korean Lessons

#### Quick guide to 한글(Hangeul) ②

##### Writing 한글 Let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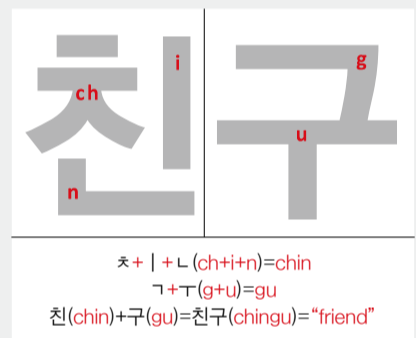
한글 is written top to bottom, left to right. For example:



By making sure you follow the stroke order rules, you will find that writing Korean is quite easy and other people will be able to better read your handwriting.

##### Syllable blocks

Each Korean syllable is written in a way that forms a block-like shape, with each letter inside the block forming a sound/syl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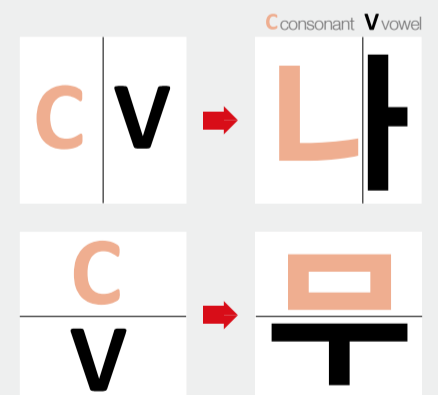


In each syllable block, there is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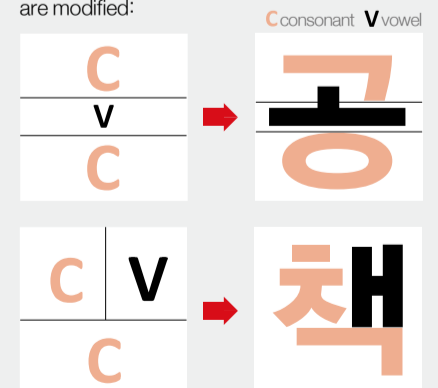
- 1 \*Beginning consonant
- 2 \*Middle vowel
- 3 Optional final consonant

\*Required in a syllable block. A block MUST contain a minimum of two letters: 1 consonant and 1 vowel.

Two of the most common ways to write consonant and vowel combinations in Korean are horizontally and vertically (the boxes drawn here are for illustrative purpose only).



By adding a final consonant(받침), the blocks are modified:



The content above is from 'Korean Phrasebook for Travelers' by Talk To Me In Korean, a company that provides free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Check out TalkToMeInKorean.com for further lessons.





# From molten iron to automobiles: Hyundai Steel

## Opening up infinite potentials for steel

Hyundai Steel, considered one of the most eco-friendly, resource recycling-oriented steel making company in the global steel industry, h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products. The steel making company is taking a leap forward to become a steel mill specializing in car materials through management innovation, investments in facilities, and aggressive R&D activities. The company successfully established the world's first resource recycling chain by forging close, cooperative relations with affiliate companies of Hyundai Motor Group.

Since its foundation as Korea's first steelmaker, Hyundai Steel has laid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growth based on the country's largest steel production capacity and top-notch technological capabilities. Currently, Hyundai Steel is developing next-generation steel plates. The steelmaker completed the development of most of steel types related to car making within two years after it operated a relevant blast furnace in a bid to obtain expertise in car materials.

The completion of the third blast furnace at the Hyundai Steel Integrated Steelworks in Dangjin in 2013 allowed the steelmaker to have a total capacity of 2.4 million tons, making it one of the largest global steelmaker. In the same year, Hyundai Steel completed a deal to take over the cold rolled steel division of Hyundai Hysco, which established an one-stop production system covering all steel production processes from raw materials to finished products. Furthermore, Hyundai Steel was named as the world's 9th most competitive steelmaker by global steel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World Steel Dynamics (WSD) in 2014 and 2015.

## Confident with the future

Hyundai Steel was founded as Daehan Heavy Industries, Korea's first steel making company, in 1953 when the country was war-torn. Above all things, as a key industrial enterprise, Hyundai Steel laid the groundwork for the basic national industry and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post-war industry and economy for over half a century. The integrated steel mill in Dangin, which was the country's first of its kind built by private capital, posted a surplus even in the first quarter after the operation of the blast furnace. Since that, the steelmaker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an integrated steel mill specializing in special steel made for vehicles.

## Leading the new steel era

The integrated steel mill of the furnace giant allowed its parent company to have a complete eco-friendly, resource recycling chain system. In the system, Hyundai Steel plays a pivotal role in maximizing synergy among affiliate companies of Hyundai Motor Group. In addition, Hyundai Steel set up an environment vision to turn itself into a world-class eco-friendly steel mill. In this regard, it carried out environment management policies on a thorough manner and introduced the world's first fully enclosed raw materials processing system.

## Seeking value beyond ste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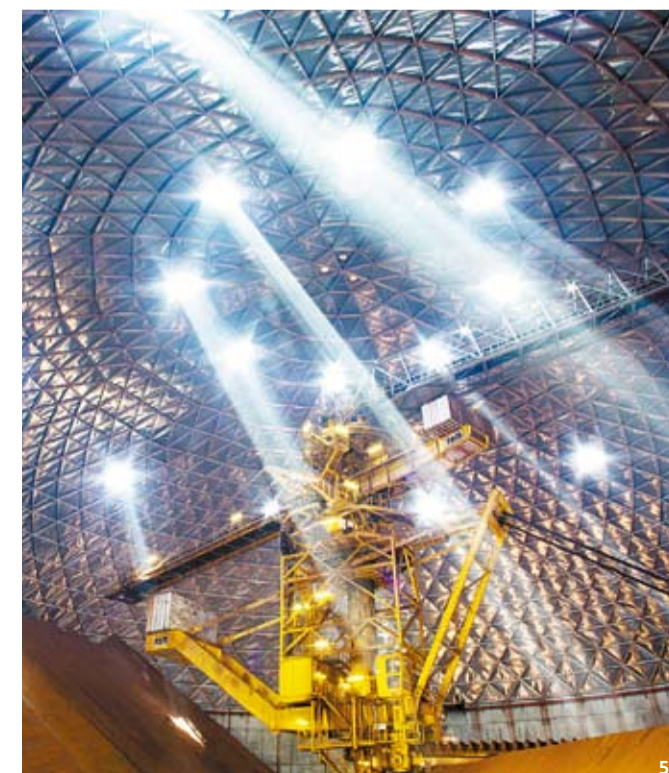
This year, Hyundai Steel plans to promote market expansion by improving product competitiveness. Its 2018 management system, which puts emphasis on change and innovation, is in line with the new vision of "Engineering the Future beyond Steel." Notably, Hyundai Steel sets out to employ "application engineering" to strengthen its management system for clients. The application engineering aims to increase clients' competitiveness and create relevant demands. The active use of the application engineering can lead to developing profitable products under stiff market competition and further help improve national industry competitiveness.



국내 최초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로 성장

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며

미래를 새롭게 물들이다



##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자원 순환형 그룹의 시작 현대제철

### 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다

전 세계 철강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제철은 친환경, 자원순환형 종합철강 회사로 지속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경영혁신, 설비 투자와 공격적인 연구개발로 자동차 소재 전문 제철소로 도약 중인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그룹 내 계열사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세계 최초 자원순환형 그룹을 구축했다.

현대제철은 국내 최초 철강회사로 출발해 전기로 분야에서 국내 최대 생산능력과 최고의 기술력을 다졌고 고로사업까지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자동차 소재생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자동차 관련 강종의 생산을 고로 가동 2년 만에 마무리하는 등 차세대 강판까지 개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당진제철소 제3고로 완공으로 총 3개의 고로를 가동해 고로 부문 1200만t과 기존 전기로 부문 1200만t이 합쳐진 총 2400만t의 조강생산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종합 철강업체로 부상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같은 해 현대하이스코의 냉연 부문을 합병하며 원료에서 최종 제품까지 모든 생산 공정을 갖춘 원스톱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2014~2015년에는 2년 연속 철강전문 분석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9위로 선정되어 글로벌 철강사로 세계 시장을 향해 위상을 뻗어가고 있다.

### 다가올 반세기가 더욱 자신 있는 글로벌 철강회사

현대제철은 1953년 전쟁의 폐허에서 국가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철강회사인 '대한중공업공사'로 출발했다. 현대제철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국가기반 산업체로 기초산업의 근간을 세우고 전후방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철강업의 성공적인 M&A 사례를 만든 현대제철은 2000년 강원산업(현재 현대제철 포항공장)과 합병해 철강전문기업으로 거듭났다. 2004년 10월에는 부도 이후 7년을 표류해온 한보철강(현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을 인수해 조기 정상화시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국내 최초의 민간 자본으로 당진에 설립된 일관제철소는 고로 가동 첫 분기부터 흑자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이후 특수강 공장 가동으로 자동차용 특수강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해 자동차 소재 전문 일관제철소로 위상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현대위아, 현대하이스코)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부특수강을 인수하고 자동차용 부품 소재로 사용되는 특수강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특수강 부문 경쟁력을 높였다. 2015년에 이르러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를 흡수합병해 자동차 강판은 물론 도금재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세계 철강사를 다시 쓰고 있다.

### 친환경, 자원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새로운 철강 시대를 선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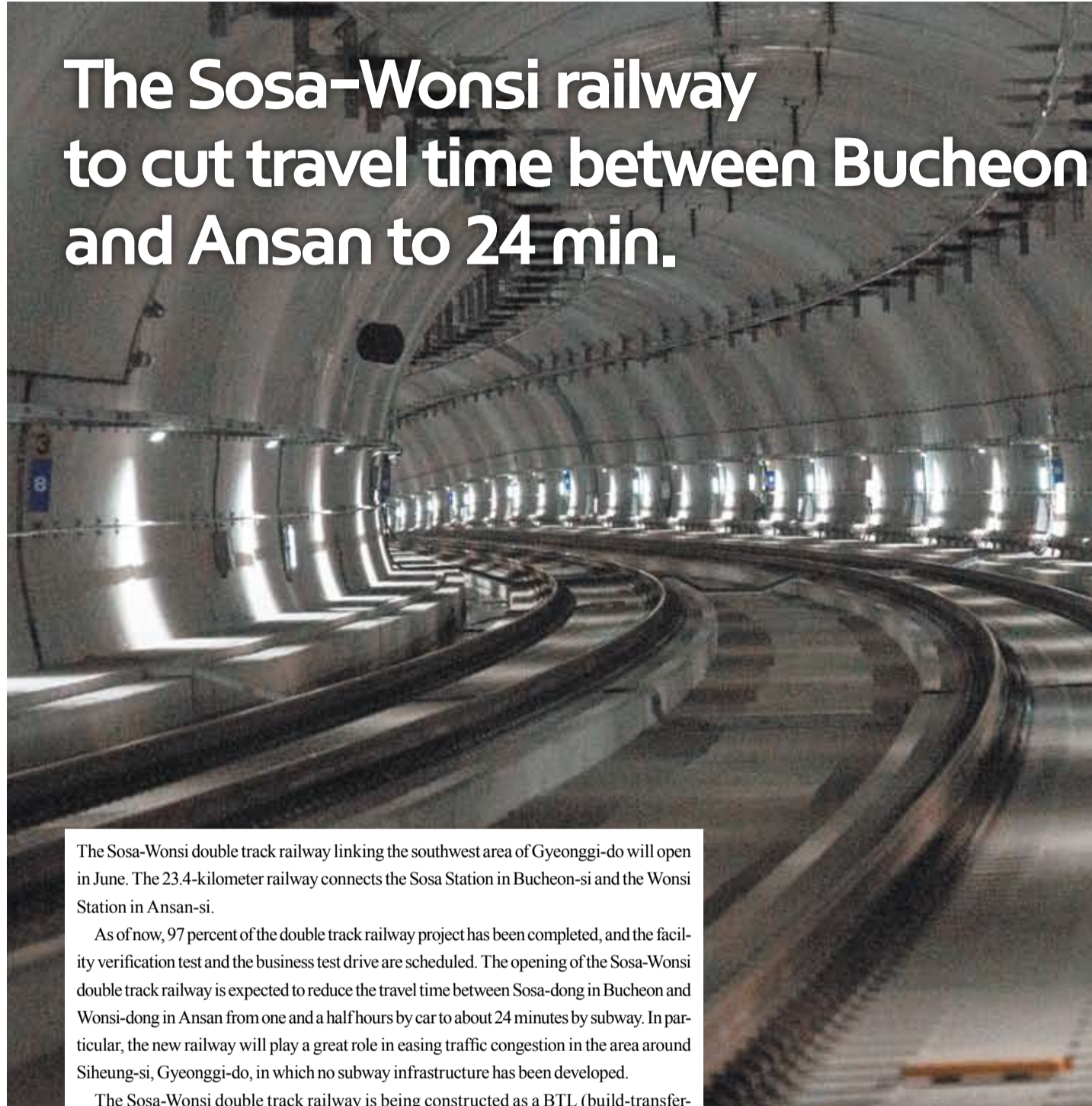
철(鐵)은 건설, 기계, 운송으로부터 일반 가정용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의 기초소재로 사용된다. 철은 순환형 자원으로 수명이 다하면 철스크랩(고철)이라는 폐자원이 되어 전기로를 통해 도록, 건설 자재로 재탄생된다. 현대제철이 일관제철소를 완공함으로써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원순환형 사업구조'를 갖췄다. 이는 고로에서 철광석과 석탄을 원료로 뽑아낸 쇳물을 완성차(현대·기아자동차)의 자동차용 강판으로 공급하고, 수명을 다한 자동차는 리사이클링 센터로 들어가 철스크랩으로 다시 전기로에 투입돼 건축물(현대건설)의 뼈대가 되는 자원순환 구조다. 철근·H형강 등의 건설자재는 이후 또 다시 철스크랩으로 재활용하는 구조인 '쇳물에서 자동차로 다시 자동차에서 쇳물'로 이어지는 상생의 시작과 끝을 보여준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자원순환형 구조에서 현대자동차그룹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제철소'라는 환경 비전을 수립해 엄격한 환경 경영 방침을 실천하고 세계 최초로 '밀폐형 원료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주요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까지도 재활용하는 '그린 제철소' 표준을 만든 현대제철은 전 세계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

올해 현대제철은 '기본에 충실한 변화, 함께 나누는 성장'을 경영 방침으로 내걸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2018년도 경영체제는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Engineering the Future beyond Steel)'라는 비전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객 성공 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전략 방법에는 비전 달성 사업전략인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Application Engineering)'을 활용한다. 이는 고객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이와 연계한 수요를 창출하는 개념이다. 또한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제품 개발을 선도해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경영전략 외에도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을 떨게 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내진강재 전문 브랜드 'H CORE'도 출범했다. 이는 현대제철이 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전이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 1 당진제철소 고로에서 출산 작업을 하는 모습.
- 2 밀폐형 원료처리 공정 전경.
- 3 열연 제품. (반제품인 슬래브를 가열해 압연 후 코일 형태로 감은 강판)
- 4 당진제철소 고로 전경.
- 5 세계 최초 도입한 등 형태의 친환경 밀폐형 원료저장고 내부.
- 6 국내 최초 내진강재 전문 브랜드 H CORE 지면 광고.



# The Sosa-Wonsi railway to cut travel time between Bucheon and Ansan to 24 min.

The Sosa-Wonsi double track railway linking the southwest area of Gyeonggi-do will open in June. The 23.4-kilometer railway connects the Sosa Station in Bucheon-si and the Wonsi Station in Ansan-si.

As of now, 97 percent of the double track railway project has been completed, and the facility verification test and the business test drive are scheduled. The opening of the Sosa-Wonsi double track railway is expected to reduce the travel time between Sosa-dong in Bucheon and Wonsi-dong in Ansan from one and a half hours by car to about 24 minutes by subway. In particular, the new railway will play a great role in easing traffic congestion in the area around Siheung-si, Gyeonggi-do, in which no subway infrastructure has been developed.

The Sosa-Wonsi double track railway is being constructed as a BTL (build-transfer-lease) project. Hyundai E&C participated in a consortium by joining hands with 11 construction companies including Daewoo E&C and one investment trust company, and began the construction in April 2011.

The Sosa-Wonsi double track railway project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Among them, Hyundai E&C is in charge of sections 1 and 2. The construction of section 1 valued at about 374.2 billion won is designed to build the 6.580-kilometer railway, four stations including one transfer station and tunnels. The section 2 project worth about 326.6 billion won aims to construct the 7.372-kilometer railway, two stations, two tunnels and a cut and cover tunnel.

The most challenging in the construction of sections 1 & 2 was the Sosa Transfer Station. The construction was conducted in the underground of the Sosa Station on the Seoul Subway Line 1 and the Sosa Bridge, a railway bridge. Special attention had to be paid because possible impacts of excavation works on the existing operation of the subway may lead to major accidents. Taking safety into account, the construction site adopted the divided shield method to cause the least change in the surrounding ground, rather than the generally used open-cut method.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site is responsible for performing complex construction works involving roadbeds, rail tracks, building, electricity and machinery. To deal with this, the construction site has made great efforts to prevent unexpected delays in the construction schedule by conducting rigorous procedure inspections.

Hyundai E&C put a top priority on safety as most of the construction area passes through the old downtown including Bucheon and Siheung. To prevent a small mistake from causing a major accident, the construction site has provided the PTW (permit to work) system and safety training programs for workers on a constant basi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no major accidents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nstruction.

### Technology

안전성 고려한 D.S.M(Divided Shield Method) 공법 적용  
Adopt safety-focused D.S.M (divided shield method)

### Ownership

선제적 민원 대처--공정 지연 미연예 방지  
Prevent construction schedule from being delayed

### Pride

경기 서남부를 잇는 간선 철도망 구축  
Build main railroad network linking the southwest of Gyeonggi-do



2공구 비상대피통로(#3) 하부에서 촬영한 소사 방향 본선 터널 전경. '전철은 달리고 싶다' 시험 운영을 앞둔 하중 성토 구간 모습.

## 부천에서 안산까지 24분, 경기 서남부의 삶이 달라진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1, 2공구 현장**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부천 소사에서 시흥시청역을 지나 안산 원시역을 잇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이 오는 6월 16일 개통 예정이다.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는 투자사이자 시공사로 참여했다.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1, 2공구는 이 사업의 스타트 라인에 있는 현장으로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며 막바지 작업 중이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임대형 민자 사업(BTL)으로 프로젝트 수주** 부천, 시흥, 안산 등 경기 서남부를 잇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이 오는 6월 개통한다. 소사-원시선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23.4km의 철도 노선이다. 남쪽으로는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을 지나 장항선, 전라-호남선과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우리 회사가 주간사로 있는 대곡-소사선을 통과해 경의선과 직결되는 서해안 축과 유기적인 남북간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게 된다.

현장의 공정률은 97%로 현재 시설물 검증 시험 및 영업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이 개통하면 부천 소사동에서 안산 원시동까지 자동차로 1시간30분 가량 소요되던 거리를 전철로 약 24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하철 인프라가 없는 경기도 시흥시 일대의 교통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프로젝트는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이다. 우리 회사는 대우건설 등 11개 건설사, 1개 투자신탁회사와 함께 컨소시엄(미래일 주식회사)을 이뤄 2011년 4월 공사에 착수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규모는 1조5495억 원에 달하며, 주간사는 대우건설(3.425%)이다. 우리 회사 지분율은 3.175%(492억원).

프로젝트는 총 4개 공구로 나뉘며, 우리 회사는 대곡-소사 복선전철과 이어지는 1, 2공구 시공을 맡았다. 3742억원 규모(지분율 63.33%, 2370억원)의 1공구는 총연장 6.580km에 4개 정거장(환승역 1개소 포함)과 전 구간 터널을, 3266억원 규모(지분율 66.99%, 2188억원)의 2공구는 총연장 7.372km에 2개 정거장, 2개 터널, 개착 박스(Cut and Cover Tunnel or Box Structure) 등을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준공을 앞두고 같은 현장 사무실을 쓰고 있는 1, 2공구는 착공 시점도 준공 예정일도 같다. 현장은 ▶2011년 4월 착공 및 현장 사무소 개설 ▶2012년 7월 (1공구) 부천교 철거 및 노반공사 ▶2012년 11월 (2공구) 구조물 철거 및 노반공사 ▶2015년 9월 공중별 성능시험 ▶2016년 2월 궤도공사 ▶2017년 8월 본선 구조물 공사 ▶2018년 2월 개통 대비 사전 점검 ▶2018년 3월 종합 시험 운행 등의 공정을 거쳐 오는 6월 16일 준공 및 개통을 앞두고 있다.

**낮에는 공사, 저녁에는 민원인 상대에** 소사~원시 복선전철 1, 2공구 공사에서 가장 난구간은 환승역인 소사정거장이었다. 소사정거장 공사는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경인선) 소사역과 소사교(철도교) 하부에서 진행됐다. 굴착 작업 중 기존 운행선에 영향을 미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현장은 안전성을 고려해 다 정거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착 공법 대신 주변 지반의 변형이 적은 D.S.M(Divided Shield Method) 공법을 적용했다. 또 한국철도공사와 '철도 운영선 인접 공사 자문 회의'를 개최해 설계를 변경하고 굴착 시마다 진동 등 변이를 철저히 측정했다.

설계를 수정하고 공법을 변경하는 일은 차라리 쉬웠다. 현장 직원들은 "현장을 운영하며 가장 힘에 부쳤던 일은 끝없이 밀려드는 민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사정거장이 들어서는 부천 도심 지역은 상가 27개 동, 55세대가 영업 중인 상업지구로 용지 보상 절차가 필요했다. 철도 관입 용지 보상 의무는 주무관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었지만 임차인을 설득하는 실질적인 대면 업무는 현장의 몫이었다. 현장은 2년간 상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회를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끝에 용지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1, 2공구 현장은 정거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구간이 터널로 이뤄져 있다. 터널 심도가 깊고 민가 직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이 많아 터널 발파 및 기계 굴착 시 수많은 민원이 시달렸다. 현장은 구간에는 발파 및 굴착 작업을 하고 야간에는 소음 및 진동 이 적은 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다음 날 진행할 작업을 거주민에게 설명했다. 직원들이 두 발로 뚝 굴고 현장은 공정 에 큰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착공 전부터 철저한 공정-안전관리... 중대재해 ZERO** 소사~원시 복선전철 1, 2공구 현장은 노반, 궤도, 건축, 전기, 기계 등 복합공종으로 이뤄져 있다. 현장은 착공 전부터 철저한 공정 검토를 통해 예상치 못한 공정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체 공정의 의, 금요일에는 협력사 공정의회의를 실시해 공정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했다. 또한 공중 강 변형 작업이 빈번한 만큼 인터페이스 회의를 통해 공사 중 간섭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대부분의 공사 구간이 부천, 시흥 등 구도심을 통과하는 만큼 안전에도 특히 신경 썼다.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작업 허가제(PTW),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했다. 그 결과 착공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할 수 있었다.

힘난한 여정을 지나 개통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1, 2공구 현장. 오랜 시간 착실하게 공사를 수행해온 만큼 남은 4개월의 시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 우리 회사의 대표 복합중용 철도 프로젝트로서 그 이름을 당당히 울리기를 기원한다.



1공구 대아-신천 구간 터널 굴착 사진. 2공구 시 현장거장 가시설 공사. 3공구 복사-대아 구간 터널 철근 조립 현장. 4공구 시흥시청거장 시공을 위해 기초 철근을 조립하고 있다. 5공구 대아-신천 구간 터널에 콘크리트를 타설 중이다. 6공구 대아정거장에 근로자들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 Interview

### 까다로운 민원도 척척 해결 '현장의 중심' 1공구 현장소장 **염정용 부장**



도심지 하부를 지나는 현장의 특성상 지자체와 민간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받은 민원만 2000건이 넘는다. 염정용 현장소장은 1공구 관리장인 김홍규 부장과 함께 휴일까지 반납하고 크고 작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 현장소장이 먼저 발 벗고 나선 덕분일까.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였던 민원이 진정됐고, 준공 예정일에 맞춰 무리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공사는 당연히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힘든 줄 몰랐지만, 민원은 조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모든 현장 직원이 합심한 결과 현상의 엄한 실태를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월 16일 개통인 만큼 고지가 멀지 않습니다. 끝까지 힘내 주십시오!"

### '철도 공사의 구루(Guru)'를 꿈꾸는 2공구 현장소장 **노시현 부장대우**



다른 철도 현장과 달리 복합공정이 어서 터널, 개착박스, 정거장, 교량, 전기, 신호, 통신 등까지 신경 써야 했다. 뿐만 아니라 1일 출력 인원이 피크 때는 400-500명에 이를 정도로 투목 현장으로서의 굉장한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 공종이 복잡하고 다양한 공법이 적용된 만큼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했다. 현장 직원이 노력한 결과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근 20년 동안 고속철도 현장에서 노반 공사를 담당했습니다. 우리 현장은 다양한 공종이 있었는데, 스스로 철도 베테랑이라 생각했는데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만큼 이 경험을 살려 우리 회사 복합철도의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은 바람입니다."

### 2011년부터 근무... '현장의 산증인' 1공구 공무팀장 **최창호 차장**



2014년 8월 복사정거장 근처에서 토 피(土皮)가 얇아 토사가 유실됐던 일은 최창호 공무팀장이 가장 식은땀을 흘렸던 순간이다. 최창호 팀장 등 현장 관리자들은 서둘러 근로자와 장비를 철수시키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해당 구간의 터널 공사를 보강했다. 초기 판단을 잘못한 덕분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공정 지연도 막을 수 있었다.

"2011년 초부터 소사~원시 복선전철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장 사무소 부지를 알아보려 부동산을 다녔던 것이 그제서 같은 데 어느덧 개통을 앞두고 있네요. 현장은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현장 직원들이 힘을 이루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생한 모든 분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7전8기'로 어려움을 뚫고 나간다 2공구 공사팀장 **안철의 차장**



공사의 특성상 기계 굴착과 발파 작업이 많았다. 안전 기준에 맞춰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나내는 발파 등으로 토사가 유실되거나, 상수도관을 터트릴 것을 우려했다. 현장은 시험 발파로 진동, 분진 등을 계속해왔다고 이야기했고, 시험 발파만 7-8차례 진행했다. 정식 발파만큼 위력은 없었지만 덕분에 암석이 깨졌고 큰 무리 없이 굴착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발파로 암석을 깨야만 굴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 답답했습니다. 시험 발파만으로도 너무 담당자가 놀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데리고 현장으로 나왔어요. 발파보다 지상에서 다니는 차량량이 더 많은 충격을 준다고요. 사실 설득이 잘 안 됐지만 거듭된 시험 발파로 굴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의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아닐까요(웃음)?"



시공간 초월한 VR, AR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

적극 활용 위해서는 타산업과의 융합 필수

**트렌드 따라잡기** 로봇릭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지금, 건축 또한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많은 전문가가 건축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은 VR, AR 등의 가상현실이 될 것이라 전망하는 가운데 가상현실 기술이 건축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글=박지일 건축전문기자

## 건축, VR을 만나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VR(가상현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마치 현실인 듯 생생한 체험이 가능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 그리고 현실 세계에 디지털 콘텐츠를 덧붙여 감각을 확장시키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이하 AR)'은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트렌드다. 오늘날 업계에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이라는 단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 VR은 모든 디지털·현실 변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곤 하지만 실제로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의 한 종류다. 그 범위가 광대하고 어떠한 응용프로그램과도 결합할 수 있어 현재 게임, 의료, 영화,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그룹은 2016년 미래를 이끌 10대 혁신 기술 중 하나로 VR을 꼽았고, 골드만삭스는 VR시장이 2025년 약 91조원(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축은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분야다. 도시, 공간, 환경, 서비스 등 여러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다양하게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생활공간의 변화 및 삶의 질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가상현실 기술이 건축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 VR 기술, 건설업에 혁신을 가져오다

건축을 쉽게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공간의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다. VR은 실제하지 않은 공간을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건축가가 그려낸 도면을 BIM으로 구축하고, VR 모델로 추출한 후 장비를 통해 설계된 공간을 보여준다. 이 가상공간에서 건축가와 발주자는 함께 공간 배치를 변경하거나 마감재나 가구의 배치 등도 해볼 수 있다. 이렇듯 선행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가는 발주자를 더욱 만족시키고, 건축 서비스의 부가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재설계를 감소시켜 시공 단계에서의 비용과 인건비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의 장소 및 위험성, 비용, 인력 등 여러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현재 많은 건설사, 건축사무소 등에서 VR 기술을 활용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전담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VR 기술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 VR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

미국 건축사무소 NBBJ는 오늘날 흔히 규격화된 건물의 축소 모형을 가상현실 플랫폼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가상

현실 플랫폼 기술을 통해 우리는 새로 지어질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의 과정을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볼 수 있다. 더불어 3D 기술을 이용, 완공될 건물 정보를 공사 전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설계 및 시공 오차를 줄이고 발주자의 의도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일본 시미즈건설은 수도관과 가스관 등 지하의 토목, 설비 배관 등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배관의 도면 데이터를 사전에 입력해 두고 위성을 통해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작업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배관 개 보수 공사 또한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종합건설회사 오바야시구미는 건축물 리모델링 시 전후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 중이다. 사전에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건물 평면도를 시스템에 등록한 뒤 현장 어디서든 태블릿PC 카메라를 이용, 현실 공간에 완성된 이미지를 겹쳐 볼 수 있는 기술이다. 이 밖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은 2012년부터 제품 제조와 플랜트 사업 등에 VR 기술을 활용해 가상공간에 미리 제품 또는 건축물을 적용해 보고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선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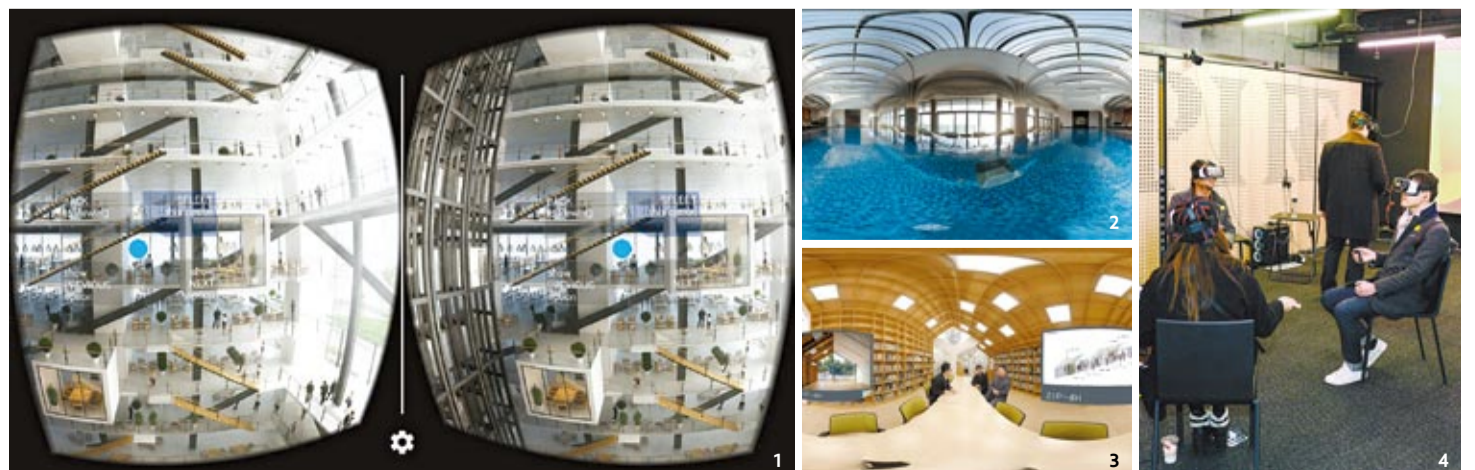
기업 및 학계와 연계해 VR 기술을 선보이는 국내 사례도 있다. 파라메트릭 디자인 알고리즘 개발사 DIGIT는 건축사사무소 아이아크와 함께 VR 기기를 통해 집의 내·외부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건물을 일대일로 복원(Mock up)하는 방식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VR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재질, 가구, 공간 구성 등에 직접적으

로 관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일부 비효율적인 설계 및 시공 과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IGIT는 이외에도 건축 플랫폼 기업인 에이플래폼과 협업해 AR, VR이 동시에 구현되는 건축 매거진을 발행하기도 했으며, 포스코 등과 협약을 맺고 기술 개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VR 전시 <젊은건축가포럼\_중점의 경험>을 구현한 가상현실 기업 VERS는 VR을 이용해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VR 전시로 주목 받은 이 행사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건축가들의 멋진 건축물을 작은 의자에 앉아 실제로 방문한 듯 체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많은 건축가도 전시장을 찾아 체험하며 관심을 보였다. 우수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추후 문화 콘텐츠 제작에도 VR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 VR 기술, 타 기술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VR 기술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다. 건축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 평가받고도 정체돼 있는 3D 프린터 등이 유사한 사례다. 당장 당면한 사회·경제·환경적 이슈에 건축이 대응하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VR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접목시켜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태동기인 VR 기술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완성도의 향상과 함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도 요구된다. 혁신과 잠깐의 유행 사이, VR 기술은 그 변곡점 위에서 서 있다.



1 VR을 이용한 건물 내부 설계 과정(© NBBJ) 2 부산 랜드마크 리조트 '아반티 코브(건축가: SKM Architect)' 의 VR 영상(© VERS) 3 2017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한 '한내지혜의 숲(건축가: 윤생동)' 의 VR 영상(© VERS) 4 <젊은건축가포럼\_중점의 경험> 전시장에서 사람들이 VR 기기를 장착하고 가상공간을 경험하고 있다.(©홍중호)

**피플 인사이드** 베트남 축구사 최고의 성적으로 베트남 전역을 들뜨게 만든 박항서 감독이 금의환향했다. 박 감독은 축구 인생에서 오롯이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쬐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말했다. 영웅이 되어 돌아온 박항서 감독이 이방인으로 겪었던 애환과 보람 등 담담하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사진=정영재 <중앙일보> 기자



## ‘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감독, “다 쏟아 부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고 있지만 인생 역전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초심으로 돌아가 담담히 다음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한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9월 말 베트남 국가대표팀과 U-23(23세 이하) 대표팀을 맡았다. U-23 대표팀은 지난 1월 27일 중국 창저우에서 끝난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동남아시아 국가가 AFC 주관 대회에서 8강에 오른 건 이번 대회 베트남이 처음이었다. 베트남은 8강전과 준결승에서도 드라마 같은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베트남 전역에 난리가 났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 신화를 쓸 당시 분위기를 뛰어넘었다.

### 민첩성과 기동력, 그들만의 강점 극대화

**Q. 베트남 미디어 인터뷰나 토크쇼에서 많이 하는 질문은?**

베트남에는 축구만 24시간 방송하는 채널이 있고 인터넷도 발달돼 있다. 축구 대표팀의 일거수일투족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제한 없이 노출된다. 베트남 미디어는 단기간에 선수들이 변화되고 성적을 낸 과정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선수들에게 다가갔는지 많이 물어봤다. 베트남 사람들이 나에게 친근감을 더욱 느끼는 이유도 선수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모습이 노출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고 내가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닌 줄 아니까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 같다.

**Q. 베트남 선수들과 키가 비슷해 체격에 맞는 작전을 잘 짜고 훈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모셨다는 얘기도 있더라.**

키가 작아서 뽑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이동준 대표(박 감독의 에이전트)로부터 제의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다. 프로팀도 아니고 대표팀에서, 아마추어 감독을 데려간다고. 그런데 그로부터 10일 만에 베트남축구협회 부회장과 사무총장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진짜인 모양이다’ 싶었다. 내가 어느 팀에 가든 높은 승률을 올렸다는 데 점수를 줬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양한 경험이 어필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한다. 지금도 내가 왜 뽑혔는지 잘 모르겠다.

**Q. 베트남 선수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처방을 내렸나?**

처음 와서 축구 관계자에게 ‘무엇이 문제냐’고 물으면 대부분 ‘체력이 문제다’고 답했다.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보자고 했더니 없다고 했다. 아직 과학적 측정 시스템이 덜 돼 있었다. 그래서 23세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바디 측정(체성분 검사)을 했다. 상체 근력이 약하고 왼발·오른발 근력에 편차가 커서 밸런스가 안

맞고 부상 위험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체지방이 없어 말랐다는 결과도 나왔다.

대회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 축구선수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했다. 저녁에 상체 근육 위주 코어트레이닝을 30분씩 하고 팀닥터와 상의해 단백질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가장 쉬운 게 우유였다. 아침에 우유를 꼭 마시도록 했고 두부·생선·스테이크 등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게끔 선수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체력 데이터도 축적해놓으라고 지시했다.

### 선수들의 순수함과 열정에 자극 받아

**Q. 그래서 체력은 좋아졌나?**

베트남 선수들은 체력이 약하다는 말을 어릴 적부터 워낙 많이 듣고 살았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많이 했다. ‘너희들 스스로 체력이 약하다고 평가절하한다. 내가 와서 보니 절대 체력이 약하지 않다. 다만 체격이 좀 열세라는 거지. 반면에 너희에겐 누구도 못 따라오는 민첩함과 스피드가 있다. 체격이 큰 사람들이 너희가 갖고 있는 걸 못 가졌다.’ 그런 부분을 건드려 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연장전에 가서도 체력에 밀리지 않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Q. 베트남 선수들의 기술 수준은 어떤가?**

기술은 더 노력해야 한다. 짧게 연결하고 기동력 있게 움직이는 점에선 장점이 분명히 있다. 부임 후 첫 경기를 통해 이 팀의 포백 시스템(수비수 네 명을 나란히 세우는 시스템)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민첩하고 잔기술과 기동력이 있다. 그래서 중앙을 두텁게 하고 측면과 미드필드를 강화했다. 공격은 스리톱이 중앙으로 두텁게 모이고, 수비는 스리백을 기본으로 하되 양 측면 미드필더가 내려서는 파이프백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

### 좋은 성적 내고도 당한 ‘비주류 설움’

박항서 감독은 일찌감치 재능을 인정받았다. 1978년 10월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아시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주장을 맡아 우

1 1월 27일 중국 창저우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결승 경기에서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모습. (©연합뉴스)

2 베트남 호찌민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박항서 감독의 사진이 든 플래카드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 (©한준희)

3 히딩크 감독과 박항서 코치.

승했다. 당시 준결승에서 북한을 승부차기 6대 5로 누르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대표로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프로팀(력키금성)에서는 파이팅 좋고 많이 뛰는 미드필더로 ‘박테리’라는 별명도 있었다. 2002 월드컵 때 대표팀 수석코치를 맡아 ‘엄마리더십’으로 히딩크 감독을 보좌했다. 폴란드와의 첫 경기에서 골을 넣은 황선홍이 벤치로 달려와 히딩크가 아닌 박항서 코치에게 안긴 장면은 유명하다. 그러나 2002 월드컵 이후 박 감독은 ‘비주류’의 설움을 톡톡히 경험했다.

**Q. 사람들이 박 감독을 B급으로 생각**

**한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나?**

내가 B급이잖아(웃음). 하지만 나도 흠길만 걸은 건 아니다. 프로팀에 계속 있었고, 자리가 없어서 쉬 기간도 많지 않다. 화려하진 않지만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내 프로축구는 젊은 지도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나이가 들면서 위기의식도 느껴지고 나도 서서히 퇴물이 돼 가는구나 싶었다.

창원시청은 고향 팀이니까 갔는데, 프로로 다시 갈 수는 없겠다고 느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도자 인생에 마지막으로 외국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Q. 말은 팀마다 관참은 성적을 올렸는데도 ‘윗선’과 충돌하면서 밀려나곤 했는데.**

내가 강성이어서 그랬다고 인정한다. 내가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랬다. 윗분들은 ‘감독이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싶다. 하지만 그건 타고난 성품이지 내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건 아니지 않나. 지금이라면 그렇게 안 하지(웃음). 이젠 ‘서로 상처 줘봐야 뭐하겠노’ 싶어서 한마디 하고 싶어도 속으로 ‘아오’ 하고 넘어간다.

**Q. ‘베트남의 히딩크’ ‘쌀딩크’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솔직히 베트남에서는 히딩크가 그리 유명하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히딩크 감독과 2002 월드컵을 함께 치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보고 듣는 게 다 배울 점이였다. 하루는 나한테 ‘미스터 박, 당신이 성인 클럽을 맡는다면 절대 팀을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라. 시간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 선수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선수한테 맞는 팀을 꾸리라는 뜻이었다. 있는 선수로 전력을 극대화시킬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적 부진으로 잡힐 수 있다는 얘이기도 했다. 그 말을 새겨서 재미를 쫓았다. 맡았던 팀마다 성적이 좋았으니까.

베트남축구협회가 날 불러준 건 내 축구 인생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내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열정과 좋은 발자취를 남겨놔야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가오는 봄, 혼남이 되고 싶다면

컬러, 소품을 100% 활용해

남성미의 완성을 보여주자



## “옷 잘 입고 싶다면 비율과 컬러에 신경 써라”

**남자 패션** 옷 잘 입는 사람, 참 부럽다. TV 속 연예인들의 패션은 따라 해보려고 해도 만만찮다. 하지만 어느 곳이나 옷 잘 입기로 소문난 사람들은 있는 법. 공간 디자이너 김치호(49) 대표에게서 ‘폼나게 옷 입는’ 노하우를 들어봤다.  
글=윤경희 <중앙일보> 기자 / 사진=우상조 <중앙일보> 기자



### TPO에 따른 스타일로 감각을 드러내라

김치호 대표(치호&파트너스)는 공간의 콘셉트부터 전체적인 디자인과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공간 디자이너다. 2004년 영국의 유명 인테리어 잡지 월페이퍼의 ‘올해의 영 디자이너’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에선 이태원의 유명 클럽 ‘글램’을 비롯해 나이키·LG전자·시디즈 등과 팝업스토어를 꾸미고, 굵직한 리빙페어 아트디렉터를 역임했다. 최근 도로 위 공간을 활용해 화제를 모은 ‘시흥 하늘휴게소’ 디자인 역시 그의 작품이다.

“과감한 디자인이나 색을 좋아하지만 업무상 미팅 자리에선 마음처럼 도전할 순 없다”는 김 대표. 이 때문에 TPO(Time-Place-Occasion)에 맞춰 거래처와의 미팅이 많은 낮에는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는 정장을, 저녁 모임이나 휴일엔 빨간 라이더 가죽 재킷 같은 과감한 스타일을 즐겨 입는다.

### 키 작은 남자라면 비율에 신경 써야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그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가 생각

하는 자신의 단점은 왜소한 체격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열쇠는 ‘비율의 마법’이다.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고민하는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균형감’은 옷 입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김 대표는 “작고 마른 사람 일수록 길어 보일 수 있는 비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스웨터·셔츠 등의 상의는 바지와 같은 색으로 입고 그 위에 다른 색 재킷을 입는 식이다.

김 대표는 “체격이 작은 사람일수록 큰 사이즈를 선택해 몸집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라며 “오히려 몸에 잘 맞게 입었을 때 몸매가 더 좋아 보인다”고 했다. 바지 길이는 섰을 때 복숭아뼈를 살짝 덮을 정도로, 통도 너무 좁거나 넓지 않은 것이 적당하다.

### ‘감각’ 보여주려면 컬러감이 필수

김 대표의 옷 입기 비법 중 또 한 가지는 화려한 색감의 옷을 선택하는 것이다. 단, 여기에도 원칙은 있다. 포인트를 주고 싶은 옷 하나만 색을 살리고 나머지 옷의 색은 전부 죽인다. 재킷과 외투에

색감을 주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검은색 스웨터에 검정 바지를 맞춰 입었다면, 그 위에 겨자색이나 체크무늬 재킷을 입는 식이다.

그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눈에 띄는 색의 옷 입기를 두려워한다”며 “이 생각을 조금만 깨도 옷 잘 입기가 진짜 쉬워진다”고 말했다. 색을 선택하는 데도 요령이 있다. 재킷 색을 선택할 때는 원하는 색보다 한 톤 어두운 색이나 회색이 섞인 듯 빛 바랜 색을 선택하면 입기가 쉽다. 예컨대 노란색 계열이 입고 싶다면 겨자색을, 빨간색을 원하면 와인 색을, 핑크를 원한다면 회색이 약간 섞인 인디고 핑크를 선택한다. 이 단계가 익숙해지면 색이 선명하고 강렬한 패턴에 도전해도 좋다.

안경·스카프·브로치 등 액세서리를 이용하면 스타일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와인 색 스카프를 하고 안경 색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세련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 김치호의 ‘한끗’ 패션 아이템



**캐시미어 재킷** 간절기에 손쉽게 멋내기 가장 좋은 아이템이 바로 캐시미어 재킷이다. “캐시미어 제품들은 따뜻하고 화려한 색이 많아서 점잖게 패션 감각을 뽐내기 좋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단색보다는 여러 색이 조금씩 섞인 체크무늬 재킷이 무난하면서도 어디든 잘 어울린다.

**안경** 그는 4-5가지의 다른 안경을 준비해놓고 옷 스타일에 따라 테의 소재와 색을 맞춘다. 밝은색 옷을 입을 땐 크림색이나 밝은 갈색 테 안경을, 어두운 색을 입을 땐 짙은 갈색 테 안경을 선택해 통일감을 주는 게 포인트다.



**스카프** 스카프는 바람 부는 봄에 활용하기 좋은 남성들의 패션 아이템이다. 밀라노에서 오래 활동한 그는 추운 날씨 때문에 스카프를 즐겨 하던 습관이 남아 한국에 돌아와서도 쓸쓸할 때는 늘 스카프를 꺼내 든다.



**신발과 양말** 남자들이 의외로 어려워하는 게 양말 색 맞추기다. 김 대표는 검정 또는 와인 색 구두와 흰색 스니커즈를 즐겨 신는데, 양말은 바지 색보다 어둡거나 밝은 것을 선택한다. 양말 색깔은 줄무늬·체크무늬 패턴 중에 바지와 신발 색이 들어간 것을 고르면 실패가 없다.



생각의 좌표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와 컬링 여자 대표팀을 통해 배운 팀워크.

## 더디 가도 함께 가자

###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중들이 원한 것, 팀워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는 끝나자마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김보름·박지우·노선영 선수가 함께 나간 경기였고, 개인 종목이 아니라 마지막 선수까지 함께 들어와야 기록이 되는 팀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영 선수를 뒤에 남긴 채 김보름·박지우 선수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분노했다. 한 선수가 힘에 부치면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팀워크가 필요한 경기였지만, 그런 모습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팀 종목을 의미는 퇴색되어 버렸다.

반면 대한민국 컬링 여자 대표팀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번 동계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빙판 위에서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는 모습으로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던 컬링이란 종목은, 이번 여자 대표팀을 통해 너무나 아름다운 경기가 되었다. 시종일관 침착하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김은정 선수는 ‘안경선배’라는 애칭을 얻었다. 그리고 그가 경기 도중 팀원인 김영미 선수를 부르는 “영미!”라는 외침은 하나의 유행어가 됐다.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지만(물론 그것도 엄청난 성과다) 대중들은 금메달을 딴 선수들 못지않게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었다. 그들의 놀라운 성과는 혼자자 아니라 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가 처음 치렀던 88서울올림픽 시절만 해도 우리에게 중요했던 건 금메달과 전체 순위였다. 그래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가 이어졌지만 아쉽게 은메달에 머문 선수들에 대한 조명은 별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은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의 아름다운 질주와 경기 후 금메달을 딴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가 이상화 선수에게 표한 존경에 박수가 쏟아졌다.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팀다운 팀의 모습을 보여줬던 남자 팀추월 대표팀에 대중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중들이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 거둔 성과에 더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다.

### 협업과 팀워크, 시대의 화두가 되다

팀워크를 요구하는 건 동계올림픽 같은 스포츠 분야만이 아니다. 이제 팀워크와 협업은 기업들이 보다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로 다가오고 있다. 한두 명의 천재적인 엘리트들이 내놓은 결과보다 여러 명이 함께 머리를 모아 내놓은 결과가 훨씬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티브가 그 어느 분야보다 필요한 대중문화계에서는 협업 시스템이 이제 성공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원호 사단의 협업 시스템이다. <응답하라> 시리즈와 최근 <슬기로운 감빵생활>까지 모두 성공시킨 신원호 사단은 예능 제작팀의 협업 시스템 그대로 드라마를 제작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드라마 업계는 이제 메인 작가가 있다고 해도 다수의 보조 작가들의 협업이 당연한 체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된 건 지금의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양해졌고, 다양성을 수렴하려면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취향이 더해질 때 더 좋은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드라마 업계에서는 이제 작가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서 ‘소통 능력’이 꼽히고 있다. 제 아무리 좋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각각의 아이디어들을 끄집어내는 소통

### “혼자가 가는 것보다

### 함께 가는 것이 결국 빠른 길”

능력이 없다면 결코 협업의 효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성과를 가르는 것으로 협업의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혼자 잘하는 개인 역량보다 함께 잘하는 팀워크가 그 자체로도 경쟁력으로 자리하게 됐다.

### 소수 엘리트의 시대에서 스마트 대중의 시대로

함께하는 팀워크가 우리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건 소비자, 즉 대중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80년대 정치 민주화와 90년대 경제 민주화 이후 인터넷 같은 대중의 소통 창구가 생기면서 이른바 ‘스마트 대중의 시대’가 열렸다. 엘리트 혹은 전문가가 주도하던 시장은 대중에게로 넘어갔다. 조속한 성장이 필요했던 개발 시대에는 엘리트 주도의 국가 경제가 힘을 발휘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급성장에는 그만큼 희생을 동반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급성장이 만들어낸 성과만큼 긴 후유증을 우리는 지금껏 겪고 있는 지도 모른다. 결국 빠르다고 봤던 것들이 결코 빠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셈이다. 게다가 대중들의 취향이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몇몇 소수 엘리트의 빠른 선택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여럿의 팀워크를 통해 발현되는 다양한 취향의 공유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뒤쳐진 선수를 통해 대중들이 본 건, 이러한 속도에 경도된 구시대의 그림자였을 게다. 그래서 조금 더디가더라도 함께 가자고 한목소리로 외쳤던 것이다. 그것이 결국에는 더 빠른 길일 수 있으니.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의 여자 컬링팀.



문화 책갈피 | 올봄, 다양한 영화들이 영화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 3월에 뭐 볼까? 개봉 영화 베스트



###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감독 이장훈  
출연 소지섭, 손예진, 고창석  
개봉 3월 14일

일본 로맨스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한국판이 개봉했다. 영화는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고를 올린 이치카와 다쿠지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했다. 세상을 떠난 아내 수아(손예진)가 기억을 잃은 채 우진(소지섭) 앞에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연인끼리 보면 좋은 영화’라는 평가다. 연인의 소중한 마음을 진하게 느끼고 싶다면 영화관으로 달려가자.



### 로건 럭키

감독 스티븐 소더버그  
출연 채닝 테이텀  
다니엘 크레이그, 아담 드라이버  
개봉 3월 14일

할리우드 대표 하이스트 무비 <오션스> 시리즈를 연출한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 별 볼일 없이 살던 로건 형제가 세계 최대 레이싱 대회 날 지하 금고를 털기 위해 ‘한탕’을 계획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존 덴버의 컨트리 송으로 정겨운 분위기를 더하고 개성 뚜렷한 캐릭터들로 웃음까지 책임지니 안 볼 이유가 없다.



### 퍼시픽 림: 업라이징

감독 스티븐 S드나이트  
출연 존 보에가, 스콧 이스트우드,  
케일리스페니  
개봉 3월 21일

강력하게 진화한 적(카이주)에 맞선 거대 로봇 ‘예거’ 군단의 전투를 그린 SF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관람 포인트는 아군과 적군의 진화다. 무섭게 강해진 카이주, 스피드와 무기가 업그레이드된 예거 군단의 전투 장면은 가히 짜릿하다.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로케이션을 진행했다고 하니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궁금하다면 영화관으로 향하자.



###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감독 루카 구아다니노  
출연 티모시 샬라메  
아미애머, 아미라 카서  
개봉 3월 22일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각색상을 받은 작품. 열일곱 소년 시절에서 만난 스물넷 청년에게 빠지는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거장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9년 동안 준비한 작품이다. 영화의 배경도 감독이 실제로 살고 있는 이탈리아 남부 ‘크레마’다. 아카데미가 선택한 영화라고 하니 믿고 봐도 좋겠다.



### 7년의 밤

감독 추창민  
출연 류승룡, 장동건, 송세벽  
개봉 3월 28일

정유적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 ‘7년의 밤’, 이 원작이다. 자신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한 소녀를 죽게 한 후 모든 걸 잃은 남자 최현수(류승룡)와 딸을 잃고 복수를 계획한 사이코패스 오영제(장동건)의 대결을 그린다. 인기 소설의 영화화, <광해>를 연출한 추창민의 신작, 오랜만에 스크린에 모습을 비춘 장동건이 이미 지 변신을 한 영화라는 3박자가 큰 기대를 모은다.

## 사뿐사뿐, 꽃길만 걷는 일본 소도시 여행

봄의 서막은 누가 뭐래도 봄꽃으로 열린다.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일본 소도시에서 가슴 뛰는 봄 나들이를 경험해 보자.

글=이은아 / 사진=일본정부관광국·아오모리 현·도치기 현 제공



### 하늘과 맞닿은 네모필라 꽃밭 국영 히타치 해변 공원

350ha에 달하는 광대한 대지 위에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는 장관이 도쿄 근교의 이바라키현에서 펼쳐진다. 봄에는 수선화, 튜립, 네모필라, 양귀비, 장미 등이, 여름에는 해바라기와 백일초가, 가을에는 새빨간 코키아와 코스모스, 그리고 겨울에는 유채꽃과 수선화, 매화 등이 히타치 해변 공원을 수놓는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꽃은 네모필라다. 4월 하순 무렵부터 5월 말 정도까지 450만 송이의 네모필라가 공원 내 미하라시 언덕을 파랗게 물들인다. 국영 히타치 해변 공원에서 꽃을 구경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튼튼한 두 다리로 걸거나, 자전거 혹은 해변 열차에 올라타고 플라워 링에 탑승하는 방법이 있다. 해변 열차의 경우 공원 내 10군데 정류장을 경유하는데 35분 정도면 일주할 수 있다. 한편 플라워 링은 풍차처럼 빙글빙글 도는 관람차의 일종으로 12분 동안 상공에 머물러 탑승객들이 화려한 꽃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도쿄에서 국영 히타치 해변 공원은 차로 약 두 시간, 나리타 공항에서는 한 시간 거리다. 입장료는 15세 이상 성인이 410엔, 65세 이상은 210엔, 7~14세는 80엔, 6세 이하 무료다.

**주소**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 마와타리 오누마 605-4  
**문의** +81-29-265-9001, hitachikaih.in.jp

**주변 볼거리** 가이라쿠엔 일본 삼대 정원 중 하나로 꼽힌다. 3000그루의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다.

**아쿠아월드 오아라이**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상어가 있다고 알려진 대형 수족관이다. 상어 50종을 포함해 약 580종의 바다 생물을 볼 수 있다.



### 성터에서 즐기는 벚꽃 낭만 히로사키 공원

일본의 본섬인 혼슈 최북단에 있는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이곳에는 고성(古城)과 벚꽃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그림엽서에서나 볼 만한 풍경이 존재한다. 1611년에 축성된 히로사키 성은 성문과 망루, 천수(아성)와 해자 등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히로사키 공원으로 정비돼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있다. 히로사키 공원의 벚꽃은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에 절정을 이룬다. 그맘때 2600여 그루의 빛나무가 화려한 꽃망울을 일제히 터뜨려 길에는 꽃비가 내리고 성을 둘러싼 해자에는 꽃잎 강이 만들어진다. 히로사키 공원에서 벚꽃을 즐기는 방법은 꽤 다양하다. 해자를 가로지르는 빨간색 다리 위에서 성과 어우러진 벚꽃을 볼 수도 있고, 해자에서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수왕버들처럼 가지를 늘어뜨린 벚꽃 나무와 물에 살포시 떠다니는 벚꽃잎을 구경할 수도 있다. 6월까지 잔설이 남아 있는 이와키 산과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의 조화가 공원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2018년 벚꽃 축제 기간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벚꽃을 즐길 수 있다. 어스름이 깔리고 조명이 켜지면 햇볕 아래서는 느낄 수 없는 벚꽃의 요염한 자태가 드러난다. 낮부터 밤까지 일본의 벚꽃을 히로사키 공원에서 느긋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 입장권은 성인 310엔, 소인 100엔이다.

**주소**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시모시로가네초 1  
**문의** +81-172-33-8739, www.hirosakipark.jp

**주변 볼거리** 히로사키 사과 공원 일본 최대 사과 생산지인 히로사키시가 자랑하는 사과 테마 공원. 약 4만㎡ 부지에 1000여 그루가 넘는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다. 네푸타마을 종이 조형물 속에 등을 밝혀 수레에 싣고 거리를 행진하는 일본 축제인 네푸타. 이 지방의 특색 있는 네푸타 관련 공예품 전시관과 기념품 가게가 자리한다.



### 보랏빛 등나무 꽃이 압권 아시카가 플라워 파크

도쿄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아시카가시에는 '꽃의 낙원'이 있다. 아시카가 플라워 파크에는 한겨울을 제외한 1년 중 대부분의 계절에 꽃이 핀다. 3월부터 4월 중순까지는 2만여 송이의 튜립과 샛노란 유자가 매력을 뽐낸다. 여기에 절정을 맞은 조팝나무와 벚꽃이 우러져 한 폭의 서정적인 풍경화를 완성한다.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는 수령(樹齡) 150년의 등나무가 보라색, 하얀색, 노란색으로 고운 옷을 차려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시카가 플라워 파크의 등나무 꽃은 야간에 더욱 신비로운 매력을 더한다. 등나무를 배경으로 조명이 드리워지면 낮과는 사뭇 다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겨울에는 '빛의 꽃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개 전구가 공원을 밝히는 일루미네이션이 펼쳐진다. 아시카가 플라워 파크는 개화 상태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데, 봄에는 300엔부터 최고 1700엔까지 오른다. 명물인 등나무 소프트아이스크림도 꼭 먹어보자.

**주소** 도치기현 아시카가시 하사마초 607 **문의** +81-284-91-4939, www.ashikaga.co.jp **주변 볼거리** 아시카가 학교 한때 3000명이 넘는 학도를 배출한,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학교다. 반나치 14세기 무로마치 막부를 일으킨 아시카가 가문의 저택으로, 본당과 경당 등이 국보로 지정된 역사적 건축물이다.